

# 익산종합운동장 공인 제1종 심사

### 전북 유일의 시설로 주·보조경기장, 150여종의 육상공인 용품 갖춰 리모델링 추진으로 새롭게 탈바꿈... 500억여원 예산 절감

2018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에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육상경기장 공인 제1종 심사를 마쳤다.

이와함께 13일부터 15일까지 육상경기 심판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습회를 갖고 2018 전국(장애인)체전의 공정한 경기문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자 다짐했다.

이번 육상경기장 공인 제1종 심사를 마친 익산종합운동장은 전북에서 유일한 시설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150여종의 육상공인 용품을 갖추고 있으며, 올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이용은 물론 육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앞으로 전국대회 규모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도 유치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3월 '경제체전'을 모토로 착공된 익산종합운동장은 건립한지 27

년여 경과된 시설로 경제체전 계획에 따라 신속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5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스탠드의 전면교체, 육상 트랙 우레탄 전면교체, 본부석 및 VIP실 증축, 전광판 신설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으로 신속한 경기장 못지않게 새롭게 탈바꿈 됐다.

현재 일부 부대시설에 모든 시설이 마무리된 상태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체전 사전대회로 제39회 전국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와 제23회 전국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가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사전대회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10월 전국체전 개최 이전까지 보완하여 완벽한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은 "육상경기장 제1종 공인 심사가 잘 마무리됨에

따라 10월에 있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체전이 마무리되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많은 전국대회가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 10. 12.~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 10. 25.~29.)은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을 중심으로 전주, 군산, 완주 등 전라북도 내 14개시·군에서 분산하여 개최된다.



2018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이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육상경기장 공인 제1종 심사를 마쳤다.

전국체전은 모두 47개 종목 선수와 임원 등 30,000여 명이 참가하며 주 개최지인 익산시에서는 개·폐회식을 포함한 12개 종목(육상, 야구·소프트볼, 복싱, 펜싱, 보타볼링, 배드민턴, 축구, 배구, 검도, 철인3종, 볼링, 에어로빅)이 열린다.

/익산=우병희기자

## 익산시 청년농업인, 선진 해외 농업현장 연수

익산시가 청년농업인의 학습모임인 청춘어람(회장 한승호)이 올해 3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국외훈련(현장주행) 공모 사업에 선정, 16일 청춘어람 회원 20여 명이 4박5일의 일정으로 일본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밝혔다.

청춘어람은 '청년 창업농의 정서적 정착 지원 모델 발굴 연구'라는 주제로 일본 지바현의 미나미보소시 청년농가 방문 등 청년창업농에 대한 정책 지원과 민간차원의 노력,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사례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춘어람 회원들은 일본 후계농업 및 청년농업의 현장적 이해 등 연수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익산형 정착지원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계획이다.

한승호 회장은 "이번 일본 해외연수를 통해 젊은 영농세대들이 고민을 공유하고 정서적 정착을 통해 자립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임영주 대표 초청 7월 강좌

군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이 미래사회 문화시민 역량을 갖춘 평생학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만금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아카데미는 오는 18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부모교육 전문가이자 이동문화가, 가족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임영주 대표를 초청해 '독기 빼고 우아한 부모 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임영주 대표는 EBS <부모>와 KBS <아침나침> 등에 출연해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생생한 육아 해법을 제시하여 많은 부모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

우리 아이를 위한 자존감 수업> 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애정으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강연을 통해 임영주 대표는 아이의 자존감에 산행하는 것이 부모의 행복한 자존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의 자존감이 건강해야 아이와의 대화에서 자존감 울리는 대화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그동안 현장에서 받은 많은 질문과 상담 사례를 토대로 아이와의 맞춤형 자존감 대화법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며 아이의 기를 살려주고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육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

### 관광활성화 위한 관광협회중앙회·전북협회와 협약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전북관광협회와 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양해각서(MOU)체결은 유례 없는 행보이며 이번 MOU 체결로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소속의 많은 지역관광협회, 여행사, 기관 및 단체들이 군산시 관광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관광산업 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협회 중앙회, 전북관광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며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관광객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 군산고용지원센터, 경력단절 여성 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20일까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익석)는 한국자택 퇴사자 가족들과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까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8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총 188시간)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고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실기 수업 외 직무소양 및 취업대비 교육으로 운영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450-1302)에서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 등 관련 직업훈련을 원하는 남성 퇴직자의 수요도 파악해 향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0일까지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488-0056~6)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실라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한식조리기능사과정 외에도 8월부터 유휴 보육교사 재취업 과정, 위그선 정비사 및 운항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배, 장장비 등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의회, 지역현안·민생행기 의정활동 돌입

8대 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현안과 민생행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10일부터 17일까지 제21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두 상임위원회는 조경수, 신영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은 집행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과 민생기 시인과 함께 하는 자립 도시 군산에 맞는 사

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8대 시의회에 새롭게 입성한 초선 의원들도 임시회를 앞두고 자료 준비를 하면서 군산시 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 청취를 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추진 방향을 전달했다.

제21회 임시회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부의장파 배형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정길수 의원을 비롯해 초선의 한인길 송미숙 이한세 의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의원은 "조선소 기동 중단 지엄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지역경제 회복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16일 제210회 임시회를 열고 30일까지 15일 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제21회 시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2018년도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운영 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정현율시장에게 들은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견 처리와 김용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조규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0회 임시회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로 향후 4년간의 의정활동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동료의원에게는 "정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토대로 한 지역여건의 부합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 주요업무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충영, 신봉해, 이순주, 김수연, 김진규, 박종대, 한상욱 위원으로 구성됐다.

/익산=우병희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